이:글들

여섯 번째 《이:글들》은 삶을 비추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매체를 탐험하며, 이야기에 담긴 감정을 곱씹고 서로의 시선을 마주하는 모임입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작품에서 느끼는 울림을 공유하며, 그 감정들을 글로 녹여내는 과정에서 조금씩 성장해왔습니다. 작품을 통해 나를 돌아보는 이 시간이, 우리의 소중한 기록으로 남길 바랍니다. 감상에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 그리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다본 이야기를 당신도 함께 해주세요.

문예리뷰그룹 6기

〈문예리뷰그룹〉은 '리뷰(review)'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채로운 필자들로 구성된 작은 모임입니다. 소설/영화로 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서 필자 개인이 원하는 문예 작품 한두 편을 골라 천천히 바라봅니다. '오래' 그리고 '여러 번' 읽는 이 과정에서 독자에게는 새로운 언어가 부여됩니다. 또한 합평으로써 나만의 이해와 해석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 또 접속합니다. 저자와 독자라는 위치를 넘나들며, 참여자 개개인이 자신만의 리뷰 스타일을 고민해보고 생산해내는 것이 우리 모임의 목표입니다.

발 행 일 2025. 05. 12
발 행 인 한수영
발 행 처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BK21+
근대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교육연구팀
편 집 권기연
필 자 권현, 이종훈, 신정은, 채예람, 김지훤, 안다운
디 자 인 디자인집

(2649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연세대길 1 연세대학교 청송관 318호 국어국문학과 사무실
Tel. 033-760-2997 **Homepage.** https://ycms.yonsei.ac.kr/bk21ymkll

Contents

원펀맨: N포 세대의 히어로	만화 <원펀맨> 리뷰 권 현	04
순수라는 것	소설 <오후의 예항> 리뷰 이종훈	09
삶을 보다	뮤지컬 <프리다> 리뷰 신정은	13
돌아보는 몸, 돌보는 몸, 돌보아진 몸	영화 <춘희막이> 리뷰 채예람	18
신흥 귀족이 가득한 SNS상에서 가치관 살아남기	드라마 <셀러브리티> 리뷰 김지훤	24
'우리'가 사는 세상	시집 <그 쇳물 쓰지 마라> 리뷰 안다운	29
창모-PURE RAGE: 반지하부터 평창동까지, 공백부터 복귀까지	노래 <PURE RAGE> 리뷰 권 현	33

원펀맨: N포 세대의 히어로

만화 〈원펀맨〉 리뷰 / ONE / 2009

권 현

영웅은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나폴레옹, 김유신, 칭기즈 칸과 같은 위인의 형태로도 영웅은 존재했고, 홍길동, 헤라클레스, 지크프리트와 같은 신화의 형태로도 영웅은 존재했다. 현대 사회에서, 영웅은 구전과 시편, 서사시를 떠나 매체, 그중에서도 대중매체에도 그 모습을 담았다. 슈퍼히어로가 그 예이다.

슈퍼히어로는 만화책에 등장하는 특별한 능력이나 초능력을 가진 영웅으로, 현대 사회에서 변형된 형태의 영웅이라 생각한다. 슈퍼히어로는 당대의 사회적 혼란과 미래에 직면하게 될 불안정의 이데올로기적 반영물이다.[1] DC코믹스의 슈퍼맨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의 후유증을 극복하던 시기에 등장했다. 마블코믹스의 캡틴 아메리카는 작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을 정복하려는 히틀러에 관한 신문 기사를 보고, 그에 대항하는 완벽한 영웅을 만들고자 등장했다. 만화책과 영상매체에 등장할 뿐, 그들의 역할과 의의는 근대까지 상술한 영웅들과 대동소이하다. 사람들을 결집하고,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말이다. 하지만,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영웅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근대까지의 격동의 시대에 비하면 평화에 가까운 시기가 도래했고, 개개인의 목소리가 힘을 가지는 시대가 되었다. 현대는 사람들이 결집해서 대항해야 할 거대한 악도 없고, 그래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슈퍼히어로는 그 형태가 바뀌었다. 완전무결해 만화책을 읽는 독자들을 결집하는 희망의 상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스파이더맨, 배트맨과 같이 자신의 존재를 고뇌하는 히어로부터, 죽음이 찾아온 히어로 울버린, 크립토나이트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는 슈퍼맨까지, 슈퍼 히어로는 인간적인 면모를 지니며 플롯의 속성이 되었다. 즉, 그들은 더 이상 상술한 영웅과 동등한 존재가 아닌, 슈퍼 히어로라는 이름의, 만화 속 인물의 속성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슈퍼히어로가 우리에게 있어 만화책 속 초인들의 이야기, 혹은 현대라는 배경의 판타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할 때, 일본에서 『원펀맨』이라는 작품이 등장했다.

「원펀맨」의 주인공은 사이타마로, 원래 구직활동을 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어느 날, 그는 괴인[2]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소년을 버리지 않고, 괴인과 맞서 싸워 소년을 구하게 된다. 이때 그는 어린 시절 소망하던 히어로[3]가 되고 싶다고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고, 이를 위해 트레이닝을 시작하게 된다. 매일 팔굽혀펴기 100번, 윗몸 일으키기 100번, 스쿼트 100번, 달리기 10km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머리가 빠져 대머리가 되었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힘을 얻게 된

1) 김이향, "원펀맨", 사토리 세대의 고독한 영웅. 단비뉴스, 2015. 12. 04.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86

2) 「원펀맨」 작품 내 악당을 이렇게 부른다.

3) 「원펀맨」 작품 내 직업 중 하나. 히어로 협회에 등록하면 히어로가 되며, 협회의 지원을 받으며 괴인과 싸울 수 있게 된다.

ONE-PUNCH MAN

STORY by ONE & DRAW by YUSUKE MURATA 【 원 펀 맨 】

01

【 일격 】

원작 ONE

작화 YUSUKE MURATA

대원씨아이

원펀맨 리메이크 1권 中, 무라타 유스케 畵

다.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히어로가 되었지만 너무나 강해져 모든 괴인을 펀치 한방, 원 펀치에 정리해 버리는 히어로 사이타마. 그래서 만화의 제목이 원펀맨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작품 「원펀맨」 자체는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 여러 코믹스 중 하나로 보인다. 특히나, 2010년대 이후 유행한 먼치킨[4] 장르의 작품 같기도 하다. 사이타마는 너무 강하고, 위기가 닥쳐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작가 ONE은 「원펀맨」에 두 가지 변주를 준다. 하나는 '작품 속 대중'이고, 다른 하나는 '꼿꼿함'이다.

사이타마는 펀치 한 방에 괴인을 순식간에 처치할 정도로 강하지만, 너무나 압도적으로 강해 괴인을 해치우는 장면을 아무도 보지 못한다. 수많은 히어로들이 고전하는 강력한 괴인 조차 순식간에 해치워버린다. 다른 히어로들이 잠시 기절한 사이 사이타마가 순식간에 괴인을 처치하여 그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사이타마가 괴인을 처치한 줄도 모르기도 한다. 다른 슈퍼히어로물, 혹은 먼치킨 장르와의 차이점이 이것이다. 그는 작품 속 대중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가 히어로 활약을 할수록 부와 명예 대신, 그의 진짜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는 그가 슈퍼히어로임에도 작품 속 대중의 희망의 상징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물론, 최근 작품 중에서는 마블 코믹스의 데드풀처럼 기존의 슈퍼히어로를 부정하듯 행동하는 히어로들도 몇 있다. 그 작품들과 「원펀맨」의 차이점은 사이타마는 작품 속 대중의 인정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꿈꾸던 이상적인 히어로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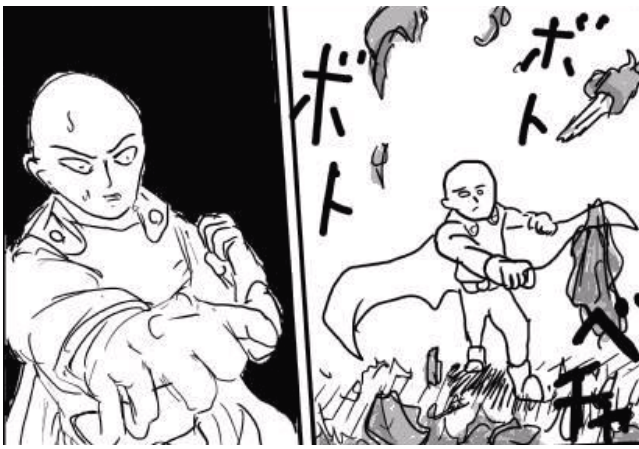
4) 비정상적으로 강한 인물을 가리키거나 혹은 그 인물이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소설을 일컫는 말

원펀맨 TVA (2015) 5화 中, C급 히어로 판정을 받고 당황한 사이타마의 모습.

"취미로 히어로를 하는 사람이다."

그가 '취미로' 히어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히어로라는 직업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히어로로 사는 것이 좋아서 하는 취미와도 같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그가 명예와 돈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처음 C급 히어로로 등급을 배정받을 때 당황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헷갈리는 시민에게 이름을 정확히 불러달라고 하는 장면에서 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사이타마는 굳이 이름을 알리려 들지 않는다. 그저 히어로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할 뿐이다. 이것이 「원펀맨」의 독특한 변주이다.

「원펀맨」의 인기는 분명 특별하다. 무라타 유스케 작가가 수준 높은 작풍으로 다시 그린 리메이크나, TVA 방영 이전에도 「원펀맨」의 인기는 충분했다. 주목할 부분은, 작가 ONE이 그리던 「원펀맨」 원작이다. 이 작품의 특이한 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작가의 그림 실력이 아무리 잘 쳐도 아마추어 수준의 작화가 좋지 못한 작품이었으며 두 번째는, 해당 작품이 작가의 개인 블로그에 올라갔다는 사실이다. 나는 이것이 의도된 독자층 설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흔히 'N포세대'라 불리는 20대 청년들을 위한 작품이라 생각한다.



ONE이 그린 「원펀맨」 1화의 마지막 장면.
좋은 그림 실력은 아니다.

시대의 발전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지만, 그것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 간의 연결이 활발해졌지만, 동시에 개인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다. 지구촌 어느 한 편에게서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어느 사람은 자신의 꿈을 이뤄 성공한 인생을 살고, SNS 상의 누구는 원할 때마다 해외여행을 간다. 한국의 N포 세대, 일본의 사토리 세대, 중국의 탕핑족, 미국의 Doomer는 모두 암울한 현실에 좌절하여,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희망을 잃고 도전을 회피하려는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등에 업고, 시대를 착각한 것처럼 고전적인 슈퍼히어로의 이야기를 다룬 『원펀맨』이 연재되었다.

개인적으로, 작중 사이타마가 작품 속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모습은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N포세대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석했다. 고심 끝에 된 히어로는 자신이 원하던 일과는 달랐고, 명예와 돈과는 거리가 먼 직업이었다. 그러나 사이타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이타마의 고민은 세속적인 문제뿐이다. 저녁 찬거리를 어떤 마트에서 사야 싼지를 계산하고, 통장 잔고와 사고 싶은 만화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다. 그는 절대 정의에 대한 신념이 흔들리지 않는 고전적인 히어로다. 시대의 위기가 닥쳤을 때, 독자를 결집하기 위한 20세기의 히어로와 비슷하다. 악당이 있다면 당연히 맞서 싸운다. 그 이유는 별것이 없다. 그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고, 해야 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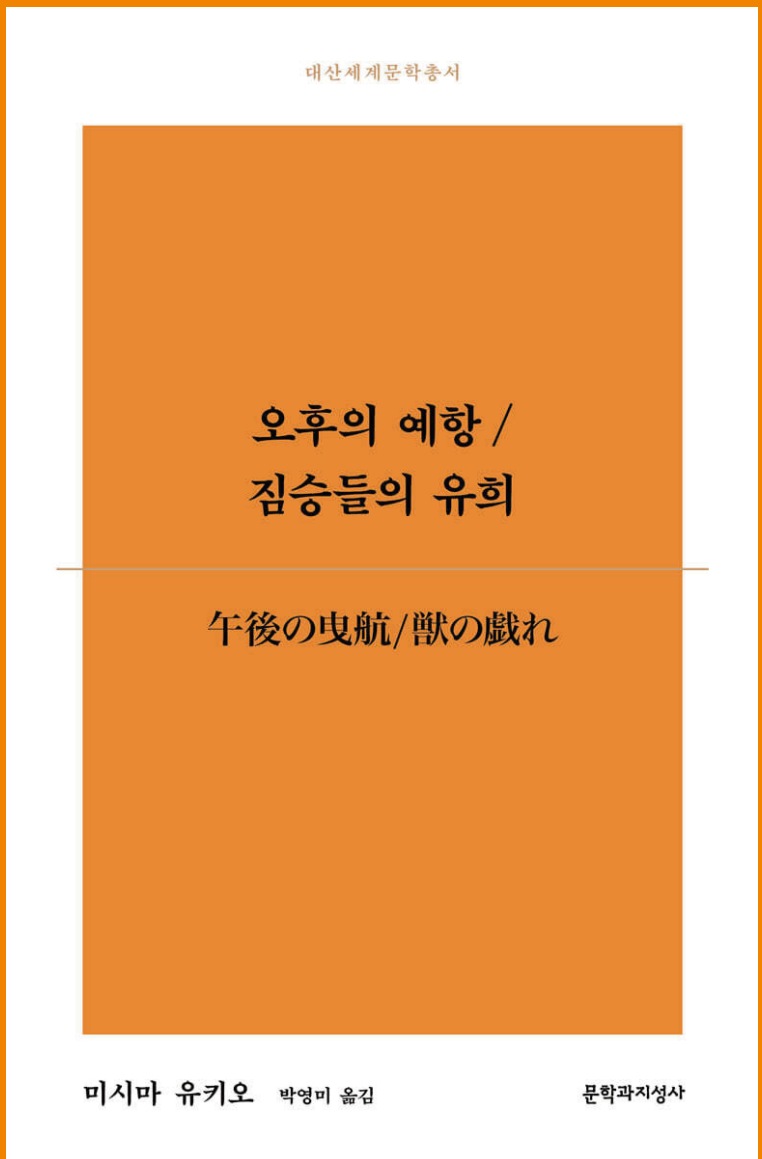
"부탁받아서 하는 게 아니야. 히어로도, 경찰도. 안 그래?"

그래서 사이타마는 괴인을 무찌르는 히어로 이상의 역할을 맡지 않는다. 작중 히어로협회는 부패해 있고, 히어로들의 승급에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그러나 사이타마는 이를 바꾸려 시도하지 않는다. 자신이 S급 히어로 전부를 합친 것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려 들지도 않는다. 다른 히어로가 도발해도 굳이 반박하지 않고, 박봉인 C급 히어로로 살면서도 급하게 S급으로 승급하려 들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이 맡은 히어로라는 역할을 뛰어넘어, 자신이 속한 사회를 뒤집어엎는 혁명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사이타마가 처음에 구직활동을 계속 실패하던 청년으로 설정된 이유도, ONE이 독자층을 의식하고 설정한 것이 아닐지 추측해 본다. ONE이 이런 만화를 독자와 소통이 용이한 개인 블로그에 게재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측을 더욱 뒷받침한다. 그렇기에, 「원펀맨」은 어떤 면에서 현대의 변형된 영웅인 슈퍼히어로의 서사시라 생각한다. 그것도, 고전적인 영웅의 서사시이다. 시대의 위기인 청년층의 절망을 극복하고자,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과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히어로다. 그는 절망의 시대를 극복하고자 유머러스함과 전혀 흔들리지 않는 꼿꼿함의 망토를 두른 일본의 슈퍼히어로다.

순수라는 것

소설 〈오후의 예항〉 리뷰 / 미시마 유키오 / 2022

이종훈



출처: 문학과지성사

이번에 리뷰로 고른 작품은 미시마 유키오의 〈오후의 예항〉이다. 몇 달 전,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한 가로수길에서 시간이 남아 친구를 기다리던 중 우연히 서점에 들렀다가 미시마 유키오의 번역본 신간이 나와 바로 집어온 작품이다. 미시마 유키오, 그는 탐미적이고 세련되면서도 철학적인 문장을 즐겨 쓰는 작가다. 소설가를 꿈꾸는 나로서는 배울 점이 많은 작가라고 생각한다. 사물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의 악착은 읽을 때마다 늘 감명이 깊은지라 꽤 오래전부터 롤 모델로 삼아온 작가다. 그래서 그의 책은 펼쳐들 때마다 교본처럼 생각되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번에도 읽은 문장이 마음에 들면 바로 노트북을 켜서 타이핑을 했다. 그런 문장이 한둘이 아니기에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다른 새책들은 언제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시마 유키오의 〈오후의 예항〉에서 중심인물은 총 3명이다. 5년 전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자 수입양복점 '렉스'의 사장인 후사코, 그녀의 열 세 살짜리 아들 노보루, 그리고 이등항해사 쓰카자키 류지. 배를 좋아하는 노보루가 후사코와 함께 다카시마 부두에 정박한 라쿠요 마루를 견학하는 동안 류지가 그들의 가이드를 맡게 되면서 셋은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류지와 처음 만난 것은 이틀 전이었다. 배에 푹 빠져 있는 노보루가 졸라대는 바람에 후사코는 단골손님인 선박회사의 중역에게 소개장을 얻어 마침 다카시마 부두의 E 안벽에 정박하고 있는 1만 톤급 화물선 라쿠요마루를 견학하러 갔다.

후사코와 노보루가 도착한 거대한 라쿠요마루 앞에는 그들을 가이드하러 나온 류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노보루는 바닷냄새를 물씬 풍기는 모범적인 선원인 류지를 동경하게 되고, 후사코는 그런 류지와 눈이 맞아버린다. 후사코는 류지와 그 다음날 저녁 식사를 하고 야외 데이트를 즐기며, 후사코 집까지 찾아가 하룻밤을 맺게 된다.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한 둘은 결혼식 날짜까지 잡게 되는데, 이것이 '오후의 예항'의 전반적인 줄거리다. 요즘 말로 선섹후사로 맺어진 두 남녀가 결혼까지 가게 된 성공적인 케이스랄까. 그러나 모든 소설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하고, 그 갈등이 때로는 모든 것을 엎어버리는 파국을 낳는다.

모든 파국의 씨앗은 노보루에게 있었다. 그는 '자칭 천재들의 집단'에 속해 '대장'을 포함한 또래 다섯 아이들과 무리지어 놀았다. '자칭 천재들의 집단'은 '대장'을 중심으로 아이들끼리 나름의 사상을 확립하여 그것을 집단의 도그마로 삼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다. 그다지 아이답지 않은 사상들이다.

"……존재 자체에는 불안한 것이 없는데 산다는 것이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지. 사회는 원래 무의미하고, 남녀가 함께 목욕하는 로마 목욕탕 같은 거야. 학교는 그 작은 모형이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명령을 받는 거야. 그놈들이 우리의 무한한 능력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어."

"이번 설에 내가 아빠한테 물어보았어. '아빠, 인생의 목적이란 게 있기는 한가요?'

그자는 이렇게 대답했지. '아들, 인생의 목적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야.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이때 여러 가지 독창성을 경계하는 아버지의 눈빛, 세상을 단번에 축소하는 눈빛을 한번 봐야 했는데. 아버지라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기관이고, 아이에게 거짓말을 꾸며대는 기관이며, 게다가 가장 나쁜 것은 자신이 진실을 대표한다고 남몰래 믿고 있는 거야."

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포함한 어른 대부분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며 악의를 품고 있었다. 그들에게 어른이란 이 사회를 여전히 유지하고 새로운 세대의 독창성을 경계하는 기득권처럼 보였으며, 그래서 그들은 사회의 기득권이 정해놓은 제약, 질서, 법규 따위 등

을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는 동시에 그것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자유를 침해한다고까지 여긴다.

사회가 권장하고, 때로는 강제하는 모든 교육과법, 도덕률에는 그 사회가 지향하는 바가 담겨 있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결론이 아니다. 그러한 사회의 지향성을 거부하려는 소수들의 급진주의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자칭 천재들의 집단 도그마인 것이다. 자신들의 순수와 독창성이 때묻지 않도록 지키려는 어린 아이들의 자긍심이라고 해야 할까.

노보루가 쓰카자키 류지를 동경하는 이유도 단순히 그가 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칭 천재들의 집단인 그들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공간은 사회(육지)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연(존재)의 천연성이 가장 왕성하게 요동치며 드러나는 곳이다. 어떠한 억눌림 없이 그 존재성을 드러내는 바다에서 존재 대 존재로 올곧이 길을 헤쳐나가는 류지가 노보루에게는 영웅처럼 보였다. 그러나 후사코와 결혼식을 치르고 가정을 꾸리기 위해 육지에 눌러앉은 류지는 더 이상 류지에게 영웅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시각에서, 류지는 현실과 타협한 몰락한 영웅에 지나지 않는다. 더불어 노보루는 언젠가 현실과 타협할 과거의 비겁한 영웅을 자신이 진심으로 동경한 데에 있어서 분노와 수치심을 느낀다. 그 엄청난 분노와 수치심은 한때 노보루 자기 자신을 향했다가 나중에는 류지를 향해 더욱 심화된다. 이런 감정을 '자칭 천재들의 집단'에 털어놓자, 대장과 아이들은 노보루에게 그를 죽이자고 말한다. 이 살인 계획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장과 아이들 모두가 동참하는 집단 계획으로 설정된다. 이 계획의 성공 여부는 소설에서 열린 결말로 남았지만, 결말부는 류지가 대장 아이에게 수면제를 탄 홍차를 받아 마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열린 결말이 열린 결말이 아닌 셈이다.

아이들의 순수(말하자면, 어떠한 영향도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끈덕지도록 올곧은 힘)를 어떻게 이리도 지독한 방향으로 묘사할 생각을 했는지, 작가에게 물어보고 싶은 지경이다. 나는 이렇게 무섭도록 반사회적인 아이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나'라는 인간의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꼬리표로 평생 따라다닐 자신의 이름도 우리 스스로 지어 붙인 게 아니듯이,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으로서 일상 생활에 있어 특수한 체계를 따른다. 식욕을 느끼고, 수면욕을 느끼고, 성욕을 느끼고, 고통을 받고, 때론 번뇌와 불행을 느끼며 때론 행복감을 얻는다.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며, 환경뿐만 아니라 모두가 각자 타고난 것도 다른데, 시대마다 조명 받는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한평생 자신이 잘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여주고 죽어버릴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종(혹은 유전자)의 족쇄에 묶여 있고, 동시에 환경(혹은 시대)이라는 족쇄에도 묶여 있다. 물론 다른 관점으로, 족쇄 대신 축복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우리 삶의 모습을 형성하는 원천은 우리가 아니며, 따라서 '나'라는 인간의 삶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본질적으로 삶이란 굴복과 굴종을 의미한다. 굴복과 굴종의 대상이 사회일수도 있고, 존재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존재나 사회에 자아를 의탁해 굴종하고 만다. 그렇게 생각하면 진정한 자유라는게 과연 있기나 할까 정말 궁금한데, 그래서 요새 드는 생각은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뿐이다. 자신에게 타고나고 둘러싸인 것들로 인생의 대략적인 방향이 반강제적으로 설정되는데, 순수 노력만으로 그 본질을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다. 당신들이 나쁘게 생각하는 어른들 또한 그런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기에, 그런 어른들을 증오할 게아니라 한편에서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삶이라는 부조리한 굴레 속에 놓인 모든 이들을 동정할 줄 알아야 한다. 단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것뿐이다. 복수심은 어떠한 것도 해결해줄 수 없다.

출처: EMK 뮤지컬컴퍼니

삶을 보다

뮤지컬 〈프리다〉 리뷰 / 추정화, 허수현 / 2022

신정은

뮤지컬 〈프리다〉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화가 프리다 칼로(1907~1954)가 죽기 얼마 전인 1954년 어느 날, 그의 인생을 돌아보는 토크쇼 〈Last Night Show〉를 배경으로 삼는다. 시놉시스를 꼼꼼히 읽지 않은 관객이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극은 여느 토크쇼처럼 진행된다.

쇼의 호스트인 레플레하와 게스트인 프리다는 제4의 벽 뒤에서 무대 위의 세계를 관람하려던 당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당신의 답변에 따라 즉흥적으로 답하는 그들에 의해 2020년대 뮤지컬 〈프리다〉 공연장은 1954년 토크쇼 〈Last Night Show〉 공연장이 된다. 객석의 관객을 극의 등장인물로 삼는 방식이 〈프리다〉에서 처음 시도되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기에 당신은 자신의 역할과 위치와 상황을 쉽게 파악하고 극에 몰입한다.

극 중반부, 디에고와의 아이를 잃은 프리다의 절망에 가득 찬 절규, 그와 함께 이어지는 격렬한 춤사위(#08. Be Strong)로 당신이 프리다의 고통에 찬 삶에 완전히 몰입한 와중, 갑자기 프리다가 리허설을 중단[5]한다. 절정 가운데 애매하게 중단되어 버린 춤과 음악에 당신은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모든 것을 중단시킨 프리다는 그때까지 함께 호흡한 당신을 배제하고 극 바깥의 연출가와 소통한다. 연출가도 당신을 제외한 모두(무대 위의 배우와 세션, 무대 뒤의 스태프)에게 '리허설 쉬는 시간'을 선언한다.

실제 〈Last Night Show〉는 없었으니, 쇼가 존재하는 평행우주 속에 있겠거니, 극 예술 수용자의 상상력을 발휘하며 극에 몰입하던 당신은 당신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Last Night Show〉 본방송이 아니라 '리허설'임을 깨닫는다. 모두가 놀랄 것 없다는 태도로 '쉬는 시간'을 맞이하는 가운데 당신만이 '뮤지컬 〈프리다〉 관객'이라는 실제와 '토크쇼 〈Last Night Show〉 관객'이라는 허구의 정체성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한다.

실제 연출가의 목소리로 선언되는 쉬는 시간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실재'인지, 극에만 적용되는 듯한 '허구'인지 당신이 방황하는 사이, 연출가가 호명한 스태프들이 무대 위로 올라온다. 당신에게 그들은 배우가 아닌 진짜 '스태프'로만 보인다. 당신의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요소가 전혀 없는 그들의 분장과 움직임은 분명한 '연기'이지만, 배우들이 스태프처럼 보이려 '연기'한다기보다는, 실제 스태프들이 평소에

---

5) 스크립트 북에서 쉬는 시간은 다음 장면 이후에 등장한다.

프리다는 슬프지만 이 슬픔을 슬픔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자신의 남은 힘을 끌어모은다.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열정적인 움직임을 시작하고 무대엔 그녀의 그림 〈떠있는 침대〉가 그려진다.(#08. Be Strong 마지막 지문)

3. 작은 칼자국 몇 개

Be Strong이 완성되고 모두 프리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강조는 인용자.)

초연과 재연 공연 모두에서 #08. Be Strong 마지막의 춤은 프리다가 리허설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중간에 멈춘다. 이 글은 춤이 완성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것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하는 일을 무대 위에서 '재현'하는 것처럼 보인다.

작년에 걷지 못해 침대에 실린 상태로 자신의 개인전에 등장했다던 프리다는 데스티노와 메모리아가 재현하는 자기 청소년 시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지켜본다(#02. Crush). 버스 충돌사고 이후 코르셋으로 무너진 척추를 받치지 않으면 안 되었음에도 불타올랐던 삶에의 의지를 직접 노래와 춤으로 '재현'(#05. 코르셋)해 보이기도 한다. 디에기또 죽음에 의한 절망과 고통을 격렬한 춤으로 승화하려던 시도(#08. Be Strong)까지, "산산이 부서진 여자" 프리다 칼로가 스스로 걷고 춤추는 것을 '극적 허용'으로 보던 당신은 '쉬는 시간' 장면에 이르러 무대 위의 모든 것이 환상[6]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세 명의 배우 중 마지막으로 프리다를 방문한 메모리아는 프리다에게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느냐[7] 질문한다. 질문은 디에고에게 자기 동생을 모델로 소개해 주는 프리다의 발화로된 환청을 불러일으키고, 환청으로 인한 프리다의 고통은 거울 깨지는 소리[8]로 잦아든다.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상기한 프리다는 다시 리허설을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 이 혼란스럽고 환상적인 '쉬는 시간' 끝에 당신은 극의 처음부터 무대 상단에 존재한 무대장치(아래 무대 장면 참조)를 새삼 주목하게 된다.

뮤지컬 〈프리다〉의 무대 장면(출처: EMK뮤지컬컴퍼니)

---

6) "사실적인 쇼보다는 환상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리다가 죽기 직전에, 단 몇 초간 시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바라보는데, 그 파노라마처럼 바라보는 인생에서도 진짜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후략)" 〈Last Night Show〉의 정체가 가정의 토크쇼가 아닌, 프리다가 죽기 전 파노라마라는 사실은 〈프리다〉 초연 프레스콜에서 추정화 연출가의 말에서 알 수 있다.("연출 추정화, "프리다는 사실적 뮤지컬 아니야" 뮤지컬 '프리다'", 위드인뉴스, 2022.03.03. bit.ly/3J66itM(2024.04.06.)

7) 스크립트 북에서 이 대사는 "그런데 프리다,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요?"라고 존댓말로 되어 있다. 그런데 내가 처음 〈프리다〉를 관람한 날, 메모리아를 맡은 배우는 존댓말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데 프리다, 언제가 가장 힘들었어?"라며 그전과는 전혀 다른 톤과 반말로 프리다에게 말을 건넸다. 극 중에서 이 질문이 프리다의 환청을 이끄는 기폭제라는 점에서, 메모리아 '역의 배우'와 메모리아가 구분을 무화하는 반말의 대사가 더 환상에 적합한 대사일 것이다.

8) 〈프리다〉는 프리다의 인생을 '버스 사고, 디에고와의 사랑, 마지막 외출'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 사건을 "인생의 경고음"이라는 사이렌으로 구분 짓는다. 구성된 서사에서 완전히 돌출된 거울 깨지는 소리는 무대 위의 프리다와 극을 보는 관객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음처럼 들린다.

이 무대장치는 극이 진행되는 동안 특정한 것들을 영사하는 '스크린'으로 작동했다. 날아가는 벌새의 형상, 자유롭게 춤을 추는 평행세계의 프리다, 무대에서 재현되는 중요 사건과 관련 있는 그림 등,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징물들을 시각화하는 장치로 사용된 것이다. 다만 각지고 울퉁불퉁한, 바위 같은 모습 탓에 상징물들이 또렷하게 영사되지 않았기에, '쉬는시간' 이전까지 당신에게 무대장치는 크게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거울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때까지 영사되던 그림이 깨지고 나서야 당신은 이 무대장치가 줄곧 강조되어 온 '거울'이라는 것을, 각지고 울퉁불퉁한 것은 깨진 모습을 형상화한 것임을 깨닫는다.

*저희 작품 콘셉트가 '라스트 나이트 쇼'지만 무대가 쇼의 느낌은 아니에요. **프리다 칼로의 아버지가 달아준 거울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무대라고 할까요? 처음 관객은 '쇼를 이상한 곳에서 펼치고 있구나' 싶을 텐데 마지막까지 다 보고 나면 무대가 왜 이렇게 완성됐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요.*[9]

깨지는 소리가 나기 전까지 극 안에서 '실재를 있는 그대로 재현한다고 믿기는 허구[10]'를 가시화하는 거울'은 실제로 등장하지 않고 상상의 영역 속의 상징인 듯했다. 하지만 실제로 거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대에 있었으며 많은 것들을 '재현'했다. 울퉁불퉁하게 생겼기 때문에 보는 자리마다 다르게 상을 비추어 내는 무대장치 거울의 모습은 자신의 위치와 감각에서 보인 것을 실재의 '재현'이라고 믿는 인식의 허구를 그대로 비추어 낸다.[11]

재개된 리허설 앞에서 당신에게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재개된 토크쇼의 리허설인지, 환상인지, 저들이 연기하는 것이 실제 인물인지, 환상의 인물인지, 가정의 인물인지는 이제 더는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 뿐[12]이다. 보고 있는 당신은 당신이 본 것이 당신에게 무엇이 될지 알 수 없다. 당신은 당신이 무언가를 '관람'하는 '관객'이 아니라 '실재'를 '목격'하는 '목격자'였음을 깨닫는다.

관객은 관람 행위를 진행하며 자신이 보고 '있음'을,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특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에 반해 목격자는 목격 행위 이후에 자신이 '봤음'을, 보'았'던 것에 특정한 의미가 있음을 사후적으로 인지한다. 관객은 행위의 목적을 이미 알기 때문에, '관람'이라는 자신의 행위보다 보고 있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지만, 목격자는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 있는 대상보다 '목격'이라는 자신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전통적으로, 관객은 자신 앞에 놓인 작품의 의미를 최대한 충실하게 '해석'할 것을 요구받는다. 관객의 감상은 그 순간, 그만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기에 사전 지식이나 타인의 해석을 참조하는 것이 허용되고, 관객 개인에게 귀속되기보다는 관객이 본 '것'에 귀속된다. 목격자는 자신이

---

9) "어둠 속에서도 찬란히_ 뮤지컬 〈프리다〉 연출가 추정화", 시어터플러스, 2022.03.21, bit.ly/4cJgE0t(2024.04.04.).

10) 거울을 바라보는 자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실재와 '동일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재는 실재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거울에 맺힌 상은 영원히 실재를 '재현'했다고 '믿기는' 허구에 불과하다.

11) #07. 마르티리오 마지막, 디에기또가 유산되는 장면에서 무대에는 데스티노의 구음이 깔린다. 무대정면과 오른쪽 객석에서 데스티노는 무대장치 거울에 가려져 흐릿하게 보이거나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무대 오른쪽, 프리다가 데스티노를 볼 수 있는 시선 방향과 같은 방향의 객석에서 데스티노를 무대장치에 가려지지 않아 뚜렷하게 보인다. 이는 프리다의 시선에서만 명확하게 포착되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 이를 반영하듯 당신과 프리다를 매개하던 쇼의 호스트 레플레하의 진행은 '쉬는 시간' 장면 이후 사라진다. 프리다는 직접 자기 삶을 당신에게 이야기한다. 죽음의 순간 본다는 인생의 파노라마는 자기 자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레플레하 없이 프리다가 직접 자기 삶을 설명해내는 이 지점에서 이미 프리다와 당신은 구분되지 않는다.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재현할 것을 요구받는다. 목격자의 목격은그 순간, 그만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므로, 목격자가 본 '것'이 아니라 목격자에게 귀속된다.

무대 위에서 프리다는 '현실'적인 관념에서 절대 이해될 수 없는, 디에고를 향한 사랑을 노래한다. 죽음(데스티노)은 대단한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코르셋과 목발을 갑옷과 검처럼 휘두른다더니 부서지고 썩어가는 네 모습을 보라며 프리다를 조롱한다. 디에고는 수많은 여자도 모자라 프리다의 동생과 바람을 피우고도 사과는커녕, 너랑 있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며 프리다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메모리아는 척추가 내려앉고, 오른 다리가 썩어서 잘라내야 하지만 괜찮을 것이라는 말만 건넨다. 세 사람의 압박 속에 견디지 못한 프리다는 기절하듯 침대에 쓰러진다. 그런 프리다를 일으키기 위해 평행한 우주 속 프리다인 메모리아는 말한다.

프리다! 일어나! 프리다, 너의 아버지가 네 침대에 달아줬던 거울 기억나?

넌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손끝에 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렸어. 네가 일어나지 않으면 네가 사랑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릴 텐데.

괜찮아? 네가 꿈꾼 예술에는 낭만따윈 없었어. 언제나 숨쉬는 것은 혁명이었지. 슬픔따윈 술독에 빠져 죽으라고 해. 아무리 슬퍼도 힘들어도 일어나서 그림을 그리는 것. 네 고통을 캔버스에 옮기는 것. 그게 프리다 아니야?

무대장치인 거울은 무대 상단에 달려 있다. 그 아래에서 프리다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노래하고 춤을 추며 자신의 삶을 '재현'했다. 무대는 하나의 커다란 캔버스, 무대 위 네 사람의 움직임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오른손으로 프리다가 그려냈던 자기 삶이었음을, 몸을 하나의 붓처럼 움직이는 프리다(#12. Self-Protrait)를 통해 당신은 이제 깨닫는다.

서사적으로 거울이 깨어지는 것은 '쉬는 시간' 장면 이후이지만, 처음부터 깨어진 채로 무대 위에 있던 거울처럼, 〈프리다〉의 시간선은 평행우주처럼 모호하다.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프리다의 몸부림은 매일 아침 죽음 같은 잠에서 깨어나는 인간의 몸부림과 겹쳐 '보인다.'

(선략)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고통스러워도 떠날 수 없는 나의 현실을 그려/고통스러워도 버릴 수 없는 나 자신을 그려

미친 듯이 그려야 해/그래야 견딜 수 있으니까/그림은 내 고통의 유일한 탈출구

발가락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다리를 자르면 서까지/살고자 하는 의지를 잃지 않기 위해/아니 이 모두를 위해/난 그려야 해

내가 꿈꾼 혁명/무엇으로부터 혁명이었나/멕시코의 진정한 자유를 위한/남자, 여자, 인종과 상관없이,/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상관없이/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인식을 위해/불평등한 모든 것들을 위해 일어나 투쟁하라/내 검은 목발이 아니라 붓이었어/삶에 의해 살해당하더라도 난 오늘을 버텨/내일을 꿈꿀 거야

욕조 속을 떠다니는 실낱같은 생명/예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프리다는 육체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짊어지고/남자는 여자 위에 있다는/아직도 계급이 남아있다는/잔인하고 우스운 세상 위에서/

프리다는 왜 고통스러워도 현실을 떠나지 못하고, 자신을 버리지 못했을까. ***나는? 나는 왜 고통스러워도 나를 버리지 못하고, 현실을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고통스러운 프리다의 자화상은 거울에 비

춘 듯, 그대로 당신에게 돌아온다. 욕조 속 실낱처럼, 언제 건져져 버려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삶은 프리다의 삶뿐만이 아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듯, 육체를 짊어진 프리다가 펼치는 기예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면서 당신은 당신이 짊어진 것을 떠올린다. 당신은 '프리다 칼로'라는 인간의 삶을 목격한 목격자이므로.

산산이 부서지고 썩었지만, 그림을 그린 놀라운 여자를 구경하러 온 당신은 어느새 프리다를 통해 자신을 바라본다. 구분되지 않는 실재와 허구처럼 프리다와 당신의 구분은 희미해진다. 삶에 의해 매일 살해당하더라도 당신의 오늘을 버티게 하는 것, 내일을 꿈꾸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삶을 돌아보며 해답을 얻은 프리다를 보며 당신은 아직은 찾기 힘들, 자기 삶의 해답을 추측한다.

인생의 마지막 사이렌을 들으며 프리다는 말한다. "이 외출은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괴로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충분했으니까." 프리다의 핏빛을 닮은 수박이 거울에 마지막으로 영사된다. 심장 정지음이 울리고 조명은 암전되고, 막이 내린다.

수박에 '인생이여 만세(Viva La Vida)'라고 새겨넣은 프리다는 8일 후,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외출을 떠났다. 외출을 떠나기 직전, 당신도 당신의 삶에 만세라고 찬사를 보낼 수 있을까? 지금까지 본 것을 돌아보며 미리 실망도, 기대도, 좌절도, 혹은 만족도 할 필요는 없다. 프리다의 외출을 본 당신의 외출은 아직 먼일이니까. 무대 위에서 끝난 것은 쇼가 아닌 리허설일 뿐이다. 당신 삶을 관통하는 유일한 목격자로서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될까? 세 명의 배우가 어두워진 무대 위에서 다시 한번 당신을 부른다

프리다, 눈을 떠요.
이제 당신의 진짜 쇼를 시작해야죠!

프리다 칼로, 〈Viva la vida〉(1954) (출처: 프리다칼로 미술관 홈페이지)

돌아보는 몸, 돌보는 몸, 돌보아진 몸

영화 〈춘희막이〉 리뷰 / 박혁지 / 2015

채예람

어려서 걸을 수 없을 때 우리는 유아차에 의존한다. 그리고 늙어서 걸을 수 없을 때에도 유아차에 몸을 의지한다. 한국에서 유아차는 매우 유용하고 쓸모있는 물건이자 수명이 긴 물건이다. 유아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한 육아용품이면서 노인들의 걸음을 보조하는 보행보조기이자, 짐을 싣는 수레 역할까지 한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없어진 시골이라도 유아차를 발견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도시의 유아차는 육아용품이지만, 시골의 유아차는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전천후 돌봄용품인 셈이다. 어느 시골, 유아차를 끄는 늙은 여자 두 사람이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한 사람은 아흔 살의 막이이고 또 한 사람은 일흔 살의 춘희이다. 유아차가 어리고 늙은 사람들의 지탱할 무언가이듯, 두 사람은 서로를 지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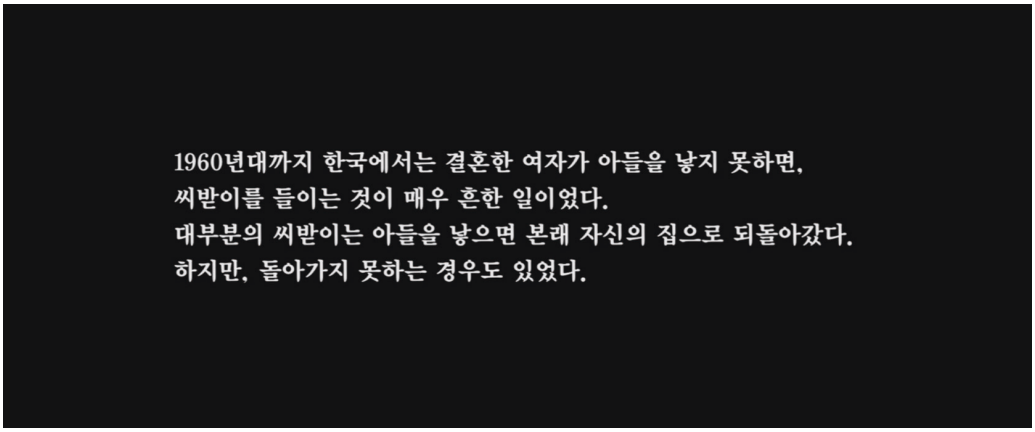
출처: ㈜하이하버픽쳐스

막이는 춘희를 살뜰하게 돌본다. 춘희를 위해 손수 음식을 만들어 먹이고, 더러워진 춘희 옷을 빨도록 한다. 춘희를 위해 밭일을 하고, 집안일을 알려준다. 아픈 눈에 안약을 넣어주기도하고 절에 가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일일이 일러준다. 장에 나가 춘희에게만 새 신발을 사준 막이는 돈의 크고 작음을 알려준다. 동네 이웃 배목댁의 장례를 멀리서 지켜보다가 믹스 커피를 자주 타먹는 춘희를 걱정한다. 씻고 있는 춘희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주고 덜 씻겨진 부분을 알려준다. 춘희의 머리를 빗기고 얼굴에 로션을 발라주는 것도,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는 것도 막이의 역할이다.

한편 춘희도 막이를 돌본다. 막이가 씻는 동안 따뜻한 물을 길어다 주고, 씻고 나온 막이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준다. 몸에 쟁기를 지고 밭일을 돕는가 하면 외출하고 돌아오며 혼자 집에있는 막이의 식사를 챙겨온다. 춘희는 막이의 아픈 배와 등허리를 쓸어주고 팔을 주무른다. 막이 대신 문 높은 곳의 자물쇠를 채운다. 일흔 살의 춘희는 막이를 '할매'라 부르고 아흔 살의 막이는 춘희를 '어마이'라 부른다. 사실 이들은 처와 첩, 즉 본처와 씨받이의 관계이다. 춘희와 막이의 삶을 가까이 비출 때에는 따뜻한 서로 돌봄의 현장이다.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는 순간 이 둘의 공생은 기묘하다.

〈춘희막이〉는 돌아가지 못한 씨받이의 이야기[13]다. 한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밭일을 하며, 함께 잠들고 일어나는, 한 남편을 두었던 두 여자의 이야기다. 막이(본처)는 시집 온 뒤로 아들을 낳았었다. 아들 둘과 딸 셋을 내리 낳았다. 그러나 아들 둘이 태풍과 홍역으로 세상을 떠나자 춘희(씨받이)를 들였다. 국민학교에 다니던 춘희를 날을 받아, 돈을 주어 데리고 왔다. 춘희는 24살에 시집와서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다. 춘희가 낳은 자식들은 막이 손에 컸고, 자식들은 막이를 '엄마'라고 부르고, 춘희를 '어마이'라 부른다. 애초에 막이는 아들만 하나 낳으면, 춘희를 보내 버리려 했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다. 막이는 '내 양심에' 춘희를 보낼 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둘은 그렇게 46년째 같이 살고 있다. 막이의 '양심'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막이가 춘희를 돌려보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춘희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막이의 이야기를 고려할 때 춘희는 정신 연령이 낮은 것으로 짐작된다. 어딘가로 외출한 막이를 기다리는 춘희의 모습은 영



13) 영화 시작 장면에 삽입된 텍스트. 박혁지(감독)·한경수(제작), 『춘희막이』, 김춘희, 최막이 외, ㈜하이하버픽쳐스, 2015.9.30. 글 속에서 첨부된 사진은 모두 영화 장면.

락없이 어린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다. 방 안에 널브러져 발장난을 치던 춘희는 문밖에 나가 한참 동안 길을 바라보며 밥맛이 없다며 읊조린다. 물에 밥을 말아먹은 춘희는 달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른다. 밤이 깊어도 막이가 오지 않자 춘희는 끝내 '엄마'가 보고 싶다며 눈물을 터뜨린다. 막이가 돌아오자 춘희는 마중을 나가고, 돌아온 막이 옆에 붙어 종알거린다.

춘희의 순박하고 어리숙한 태도는 최근에만 있었던 일은 아니다. 실제로 춘희는 국민학교를 4학년까지만 다녔던 것이다. 막이는 몇 번이고 춘희에게 돈의 대소를 알려주지만 춘희의 모르쇠에 속상할 뿐이다. 춘희는 어릴 때 배우지 못했다며 투정을 부리곤 한다. 그러나 춘희에게는 나름대로 돈을 몰라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춘희가 24살에 이 집으로 시집올 때, 친정 모친은 그녀에게 무엇이든 손 대지 말라는 당부를 했다고 한다. 춘희는 어머니의 당부대로 곡식

이며 돈이며 절대 뒤지거나 손 대지 않는다는 것이다. 춘희의 어리숙함을 걱정하는 막이는 '내 골병 덩어리'를 위해 18년 동안 천이백만원을 모았다고 밝힌다. 본인이 죽으면 춘희를 양로원에라도 보내기 위함이다.

춘희를 향한 막이의 애틋함을 일종의 '모성'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일 것이다. 여성의 돌봄은 언제나 '모성'으로 해석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막이는 본인이 낳은 자식과 춘희가 낳은 자식까지 모두 8명의 자식을 길러낸 프로 양육자이기 때문이다. 막이에게 어리숙한 춘희를 돌보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막이의 '양심'을 해석하기 부족하다. 말하자면 춘희는 화폐를 매개로 가족에게 고용된 출산 노동자였으며 아들을 낳으면 고용 관계가 종료될 계획이었다. 그런데 '막이–춘희' 또는 '막이의 가족–춘희'의 관계는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로 끝나지 않았다. 춘희는 아들을 낳음으로써 고용 관계가 끝난 뒤에도 막이의 가족과 거주하며 유사 가족의 지위를 얻어 가족 구성원으로 편입되었다. 심지어 자녀를 돌보거나 가사를 도맡는 재생산 노동을 강요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든 공식적으로든 보호망이 없었던 사적·관습적 계약에서 춘희는 보호와 돌봄을 받게 된 것이다.

막이의 양심, 춘희를 돌아보다 끝내 서로를 돌보게 된 두 사람의 관계는 영화가 비춘 한 장면에서 해석의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어느 날, 두 여자는 깨끗이 씻고 단장한 채 산을 오른다. 어느 묘 앞에 자리를 편 두 여자는 들고 온 음식들을 펼쳐놓고 곡을 하며 절을 한다. 두 여자는 무덤 앞에서 먼저 죽은 남편을 기억하는 행위를 통해 한 몸으로 엮어진다. 막이와 춘희는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다. 아내이기보다는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하는 씨받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막이도 춘희도 아들을 낳아야 했다. 아들을 낳았지만 일찍 여읜 막이는 춘희를 들이는 데에 동의해야 했고, 자신을 대신해 아들을 낳은 춘희를 쉽게 되돌려보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자신과 같은 역할을 한 몸이었기에, 자신을 대체한 몸이었기에 말이다. 만약 춘희마저 아들을 낳지 못했다면 막이와 춘희는 또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막이의 '양심'은 몸의 경험을 통해 얻은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과 이해이다. 막이는 자신과 춘희의 몸

이 같은 처지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를 돌려보낼 수 없었을테다. 막이는 가족과 남편에게 철저히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았지만 그 몸의 경험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지는 않았다. 막이는 자신의 몸을 보듬듯, 춘희의 몸을 보듬었다. 막이와 춘희의 동거는 기묘하다. 그래서 더욱 애틋하다. 그들의 동거는 서로를 돌아봄으로써 맺어진 자기돌봄에 다름 아니다. 영화는 첫 장면에서 춘희를 '돌아가지 못한' 씨받이로 호명했다. 그러나 춘희는 '돌아가지 못한' 씨받이가 아니라 '돌보아진' 씨받이이다.

1960년대까지 한국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씨받이를 들이는 것이 매우 흔한 일이었다. 대부분의 씨받이는 아들을 낳으면 본래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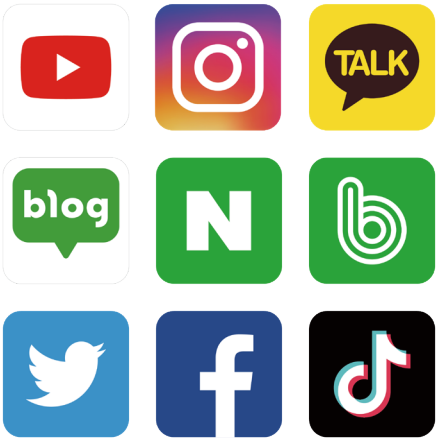
하지만, 씨받이를 돌보는 경우도 있었다.

신흥 귀족이 가득한 SNS상에서 가치관 살아남기

드라마 〈셀러브리티〉 리뷰 / 김철규, 김이영 / 2023

김지원

이 글은 넷플릭스 드라마 『셀러브리티』에 관한 스포일러가 존재하오니 주의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SNS라는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SNS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오랫동안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은 사람과 여전히 소식을 주고받기도 한다. SNS를 통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놀면서 인생을 즐기는지, 자신의 소소한 일상부터 화려한 일상까지 모두 남에게 공개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관계와 위치를 구축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SNS는 문화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문학을 사랑하는 이는 일상 속 짧은 경험적 문장 등을 SNS상에 공유하며, 작가가 되기도 하며, 패션을 사랑하는 이는 매일 자신의 OOTD를 공유하다가 쇼핑몰을 창업하기도 한다. 이렇듯 SNS상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두각을 발휘하는 이들은 인플루언서, 즉 셀럽으로 거듭난다.

넷플릭스 드라마 『셀러브리티』의 주인공 서아리는 평범한 화장품 회사 방판(방문판매원)에서 SNS 셀럽으로 성장한다. 직장 상사의 개인적 심부름으로 방문한 백화점 명품샵에서 SNS 셀럽으로 활동 중인 고등학교 동창 오민혜와의 우연한 재회에서 셀럽 행

사에 초대받게 된 아리는 이후 그 세계에 관한 호기심으로 인스타 계정을 만든다. SNS 셀럽인 민혜의 동창이라는 이유로 아리는 유명세를 치러 빠르게 팔로워들을 획득한다. 그러면서 그 또한 다른 셀럽들과 마찬가지로 무엇을 하고, 입고, 먹는지 등을 SNS에 올린다. 평범했던 삶에서 모두가 지켜보고 동경하는 삶을 살게 되는 대상으로 아리의 신분은 상승했다. 즉, SNS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현대의 신흥 귀족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 드라마는 SNS 셀럽들이 경험하는 욕망, 질투, 갈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김철규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SNS 세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욕망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사랑하는지를 아주 리얼하게 그려내 보고자 했다"[14]고 설명했다. 이러한 특성을 더 강조해 그려내고자 한 드라마의 일부 전개가 극단적이라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뒷광고 논란', '폭로전', '셀럽들의 브랜드 운영' 등은 현실 속 셀럽의 세계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았다.

아리는 고등학교 시절 친하지도 않았던 민혜와 절친인 척 연기하게 된다. 이는 민혜가 비니맘과 왕로라의 폭로전으로 인해 지금까지 자신이 유지해 왔던 의리녀 타이틀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자 비즈니스적인 필요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리가 이에 협조한 것이 단순히 자기 동창이었던 민혜를 선의의 마음으로 아무 대가 없이 돕고자 했던 것인가? 아니다, 아리도 자신의 이익을 계산했다. '유명해지기' 위해 '유명인한테 기생해서, 유명인에게 다가가 유명인

14) 김도곤, 「'셀러브리티', 신흥 귀족 or 신흥 민폐…인플루언서의 삶」, 2023.06.30.

의 힘을 빌리고자' 민혜와 협업했다. 즉, 셀럽들은 개인적 관계를 넘어, 이미지와 이익을 추구하며 서로를 이용하는 존재로 자리했다.

이렇게 성공하는 셀럽들은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 민혜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셀럽으로 성공한 이후에는 유명세로 사업을 하며, 호화스러운 고급 아파트에서 자동차 딜러 남편과 화목한 결혼생활을 즐기는 인생을 산다. 아리도 아버지의 망한 사업으로 인해 집안이 기울었던 과거가 있음에도 SNS 인지도가 높아지자마자 사업 실패에 관한 두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셀럽들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시작한다. 그도 그럴 것이 SNS의 영향력은 그들에게 수많은 광고비와 수익을 알려주며, 셀럽의 세계에서 경제적 성공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팔로워들의 추종과 찬양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진 하나의 세계로 볼 수 있다. 그들을 지지하는 팔로워, 일명 추종자들이 없다면 그들의 위력은 사라진다. '추종'은 '남의 뒤를 따라서 좇는' 것이기에 그 영향력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위험성이 존재한다. 추종의 또 다른 뜻인 '권력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자신이 동의하는 학설 따위를 별 판단 없이 믿고 따를' 수 있기에 더 그러하다.

저는 '좋아요'가 싫어요, 여러분. '언니 예뻐요, 롤모델이에요. 공주님 같아요.' 그런 말들 저한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누구들처럼 한마디로 전 '시녀 군단' 따위는 필요치 않다는 뜻이에요. 도리어 전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네요. 왜 누군가의 시녀를 자처하죠? 저나 그들이 뭐라고요. 당신들은 뭐가 부족해서. 미안하지만 저 사양할게요. 그건 그걸 간절히 원하는 다른 공주님들의 피드에서 해줄래요?

아리는 추종자들의 '좋아요'라는 말과 시녀 '군단'을 거부하며, 팔로워들의 무조건적인 추종과 찬양하는 말을 불편해하는 등 다른 셀럽들과 조금은 다른 태도를 보인다. 그 세계에 넘쳐나는 잘난 사람들의 은근한 자랑과 과시를 아리 또한 거슬렸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을 자랑하는 데 안달 난 사람들과 자기를 차별화하는 행동을 취했다. 그러나 아리의 이러한 태도는 팔로워들의 반발을 샀고, 아리의 SNS 팔로워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maid.ari'라는 그를 깎아내리는 일명 까판 계정도 생성되고, 공주와 같은 위치에 속한 셀럽 무리, 가빈회로부터 배척당하게 됐다. 그러나 계정 '_bbbfamous' 덕분에 아리를 SNS 세계에서 매장하고자 했던 가빈회의 추악한 실태가 밝혀졌다. 그 결과, 판도는 아리 쪽으로 기울어졌고, 동시에 아리는 가빈회보다 더 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결론과 '난 겨우 모은 작은 판돈 9,100명의 팔로워를 전부 걸었던 거야.'라는 아리의 내레이션을 통해 아리는 팔로워 백만 이상 SNS 상위 1%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전략가가 아닌지 의심해 볼만 하다. 아리는 셀럽을 동경하면서도 질투하며, 셀럽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처럼 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기존 셀럽들과는 살짝 다른 결인 자기만의 추종자들을 찾고자 움직였다. 즉, 아리도 추종자를 필요로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셀럽들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셀럽을 무조건 추종하거나 찬양하며 자신의 격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 이러한 아리의 '좋아요' 및 '시녀 군단' 거부 행위는 SNS 사용자들이 지녀야 할 태도다. 그러나 실상은(물론 셀럽은 '공주', 팔로워는 '시녀'라 비유한 것이 매우 극단적이긴 하나) 시녀라고 칭하는 표면적인 어휘에만 집중하며, 시녀 되기를 거부하는 아리에 오히려 분노를 표하며, 아리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는 팔로워들이었다.

SNS 세계 속 셀럽을 향한 동경과 열광은 순식간에 질투와 비판이 될 수 있다. 아리의 절친으로 아리가 셀럽이 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아리의 사업을 매우 가까이에서 보조하던 윤정선도 모욕적 언사를 보이는 악플러로 변신해 결국 악플러를 고소한 경찰서에서 대면하게 된다. 아리는 익명성으로 숨어들어 자

기에게 비수를 꽂는 악플에 '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말에 상처받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이쯤은 견뎌야 한다'는 주문을 외우면서 악플 또한 셀럽의 숙명으로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왔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이의 질투 감정은 그의 내면을 흔들었고, 이후 _bbbfamous와 같은 악플러는 결국 그를 죽음으로 내모는 데 성공했다.

비록 정선은 아리의 큰 성공을 시기했으나 절친 아리를 죽인 악플러와 셀럽의 세계에 분노했고, 이를 폭로하고자 딥페이크*[15] 기술을 통해 아리가 셀럽으로 성공하기까지 과정을 서술한다. 그때 언급한 것이 '#유명해져라(이를 위해선 유명인에게 빌붙어도 된다.) #팔로잉, 팔로워 #좋아요 #소통해요'다. 이 폭로는 SNS 셀럽의 세계가 외부에는 화려하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질투와 갈등이 가득한 복잡한 현실이 숨어있음을 보여준다. 참으로 양면적이라는 것을…. SNS 세계 속 셀럽의 지표는 아리처럼 '시녀'는 거절하더라도 자기를 추종하는 '팔로워'는 꼭 필요하며, 그들로 인해 순식간에 성공 또는 시궁창을 맛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자체가 셀럽의 이동성과 방향성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아리 역시 직접 경험하고서야 느낀 것이지만, 그것을 직접 그렇게 해서라도 느끼는 이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솔직히 말하면 잠깐 흔들리긴 했어. 하지만 금세 웃음이 나더라. 그래서 그냥 두고 왔지.

왜냐고? 날 잘 알면서 또는 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열광하고 날 증오하는 사람들 'agree_ari?' 그까짓 것 언젠가 순식간에 'ugly_ari'가 될 테니까.

SNS로 인생은 쉽게 역전할 수 있다. 핵셀럽 아리의 전직은 고작 화장품 회사 방판이었다. 서민, 천민 계급에서 셀럽이라는 신흥 귀족으로 거듭나기까지의 과정은 간단했다, 팔로워들의 존재. 그러나 이들의 "언니, 예뻐요"의 열광은 순식간에 증오와 질투로 변질한다. 그 대표적 인물이 _bbbfamous였다. 그는 자신의 한 달 생활비를 밥 한 끼로 모두 사용하는 셀럽들의 현실에 분노를 느끼면서도 그들과 같은 보여주기식 인생을 살기 위해 항상 허언한다. 본인은 그것을 감당할 처지도 되지 않으면서 말이다. 바퀴벌레가 그득한 반지하에 살면서 고급형 아파트 앞에 택시를 세우고, 카드에는 택시비를 결제할 그만한 돈이 없어 꼬질꼬질 구겨진 지폐를 꺼내면서…. _bbbfamous의 진짜 정체, '이선영'이라는 인물은 그 좁은 반지하에서만 존재했고, SNS의 그 계정에서만 자신의 의미를 찾고자 한 것이다. 이에 아리는 그것이 끔찍하다

기보다는 슬프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아는 아리는 'aree_ari'라는 계정과 함께 자신의 SNS 복귀를 원하는 그 상황에 잠깐 SNS 세계로의 복귀를 고민했으나, 결국 그들이 언제 다시 'agree'에서 'ugly'로 태도를 바꿀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 세계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한다.

한 번 맛봤던 그 화려한 세계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용감한 행위다. 신흥 귀족이 가득한 SNS 세계에서 '__seoari'가 아닌 인간 '서아리'로 살아남길 바라며, 자신의 존재를 지켜내고자 한다. 왜냐하면, 셀럽으로 살아남으면서 자신의 존재를 지키기란 힘들기 때문이다. 드라마 속 다른 셀럽들로도 자신의 본모습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없다. 모두가 가짜의 삶을 살고 있다. 지나는 진짜 명품을 착장하기 위해 가짜 명품을 이용자들에게 팔아 부를 축적하고, 안젤라는 셀럽인 동시에 성공한 기업가와 결혼한 유부녀라는 신분으로 이미 충분한 부를 누리고 있으나 이를 더 축적하고자 스폰한다. 그들은

*딥페이크: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 기술을 활용해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처럼 조합한 편집물을 만드는 기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으나, 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하는 그들의 행동은 결국 대중이 꺼리는 비도덕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아리는 물론 가짜 광고 제안도 거절하는 등 타 셀럽들과 다르게 도덕적인 셀럽의 삶을 살았으나 셀럽으로의 삶에서 점차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자기가 비난했던 타 셀럽과 마찬가지로 아리 자기도 '시녀 군단'이 싫다고 했던 기존 가치관을 지키지 못한 채 팔로워를 의식했고, 그들에게 의존하는 삶을 산다는 것에 회의감이 들었을 것이다. 셀럽은 공인 형태로 팔로워들의 니즈에 맞춰 삶을 살아야 하고, 자신의 가치관보다도 그들의 정서를 충족한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리에게 있어 SNS 세계는 딥페이크의 부정적 속성인 가짜와 거짓이 난무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아리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카메라 앞에 나서지 않고, 정선이 대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아리의 얼굴로 셀럽의 이면을 폭로한다. 이때까지도 아리는 자신의 생존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이는 가짜 모습으로 가득한 셀럽이었던 아리의 '죽음'을 의미하려 했던 것일까. 그렇다면, 아리처럼 죽고 나서야만, 즉 SNS와 멀어져야만 온전한 가치관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니다, 팔로워와 셀럽이 진정한 소통을 통해 상호 존중한다면, 각자의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SNS 세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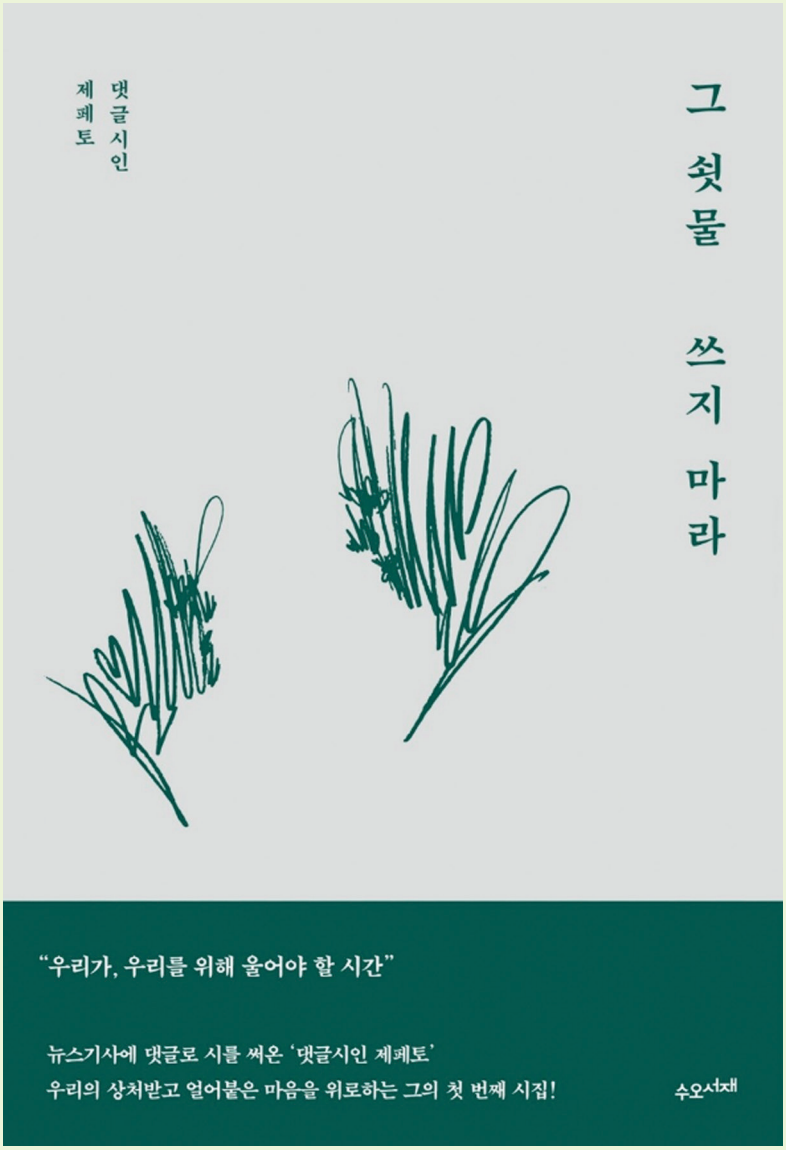
셀럽도 자기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SNS 공간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셀럽과 SNS 팔로워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저 '팔로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대중'으로 '추종'이 아닌 제대로 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진짜 자기를 유지하면서 팔로워들의 기대와 요구를 만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팔로워들은 셀럽을 추종할 때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목적이 아닌, 즉 자기 입맛대로 한 인간을 재형성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릴 필요가 있다. 셀럽도 자신의 본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말이다. 셀럽의 가짜는 그들의 이기심인 동시에 팔로워들의 요구일 테다. 어떠한 면에서든 또 다른 아리를 죽이는 팔로워가 없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나를 죽인 살인자는 나의 팔로워다.

‘우리’가 사는 세상

시집 〈그 쇳물 쓰지 마라〉 리뷰 / 제페토 / 2016

안다운



출처: 수오서재

사회면 뉴스에서는 매일 많고 많은 사건들이 쏟아진다. 비슷하지만 새로운 죽음들과 잔인한 현실들을 마주한다. '아프고 쓸쓸한' 누군가의 삶을 기사로 읽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짧은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이다.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또 변화하기를 바라지만 당장 나의 생활과는 상관이 없기에,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냥 뉴스를 '소비'한다. 그리고 내일이면 사라질 감정을 무책임하게 '공감'한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뉴스 기사 댓글창에, 제페토는 마음을 담아 시 한 편을 남겼다. 2010년 한 철강업체에서 발생한 청년의 추락사 보도에 시 〈그 쇳물 쓰지 마라〉를 남긴 이후 계속해서 댓글 쓰기를 이어왔다. 그리고 그 시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출판했다. 한 페이지의 기사가 한 편의시로 재탄생했고, 그 시에서 누군가의 삶과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었다.

다음은 제페토의 〈그 쇳물 쓰지 마라〉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 뉴스 기사와 댓글 창을 오간다. 공감의 표시를 누르고 익명의 댓글을 통해 저마다의 생각을 남긴다.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간에, 제페토의 진심으로 추모하는 마음이 전해졌다. 시는 댓글을 읽는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또, 사건에 관심 없던 이들도, 댓글 시를 보기 위해 기사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사건을 기억하게 되었다. 한 편의 시가 각자 세상을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당진서 20대 철강업체 직원 용강로에 빠져 숨져

7일 새벽 2시께 충남 당진군 석문면 한 철강업체에서 이 회사 노동자 김모(29)씨가 작업 도중 5m 높이의 용광로 속에 빠져 숨졌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김씨는 용광로에 고철을 넣어 쇳물에 녹이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 용광로에는 섭씨 1,600도가 넘는 쇳물이 담겨 있어 김씨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 09. 07.

광염狂焰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 말 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 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 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식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문 앞에 세워주게.

가끔 엄마 찾아와
내 새끼 얼굴 한번 만져보자, 하게.

〈그 쇳물 쓰지 마라〉

또 다른 시 〈나는〉도, 노동자의 죽음을 보도하는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시이다. 뉴스 기사의 보도와 달리 시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상할 수 있게 하고, 또 공감할 수 있게 만든다. 뉴스 기사의 '철판에 깔려 숨진 조선소의 노동자'는 누군가의 아들이자 아버지이고 남편이었다. 시를 통해, 숨진 노동자는 사회 속 하나의 부품이 아닌, 그냥 지나쳐야 할 '남'이 아닌 '우리'임을 깨닫는다. 내 가족, 내 친구 혹은 '나'였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였다.

보령 조선소 직원 철판에 깔려 숨져

6일 오전 11시 12분께 충남 보령시 오천면의 한 조선소에서 노동자 구모(63)씨가 작업 중 떨어진 철판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조사하고 있다.

2010. 10. 06. 연합뉴스

높은 양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산업역군이란다
나의 일터는 경제의 최전선이고
전선에는 다들 죽는 거란다

일 년에 이천 명씩
다치기도 부지기수

그런 거란다
원래 그런 거라는데
억울하다
석연치 않다

나는 역군 아닌데
종현이 아버지인데
지수 씨 남편인데
썩 괜찮은 아들인데

나는 사람인데

〈나는〉

제페토의 댓글 시가 쓰인 이후, 노동자들의 죽음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쇳물 쓰지마라〉라는 노래로, 또 시의 제목을 딴 다큐멘터리로 재생산되어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의 문제를 고발하고 있다. 제페토의 시는 공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열악했던 작업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처벌을 외치게 만들었다. 시와 노래를 통해 마음을 모은 사람들은,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한 산업 노동자의 죽음'에는 무관심하던 우리는 '광염에 사그라진 청년'에 대한 애도의 시가 탄생해서야 움직이기 시작했다. 제페토의 말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세상이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애도와 관심과 슬픔을 느끼는 건 어려운 일이 되었다. 아프고 쓸쓸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외롭게 사라진다.

이제는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따뜻함이라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제페토의 시와 같은, 단절된 우리를 '연결'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페토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작은 것들의 아픔과 소외된 고독'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시를 쓴다. 따뜻함에서 나온 작은 울림은, 감정을 소비하는 데 멈춰있던 이들에게 움직임이라는 변화를 이끌었다. 제페토의 시를 통해, 서로에게 무관심한 우리는 서로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지금은 비록 아프고 쓸쓸한 댓글이 8할쯤 되지만, 오래지 않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오면 사회면 뉴스를 떠나 조금은 나른하고 사소한 것들에 관하여 쓸 수 있을 게다."

〈서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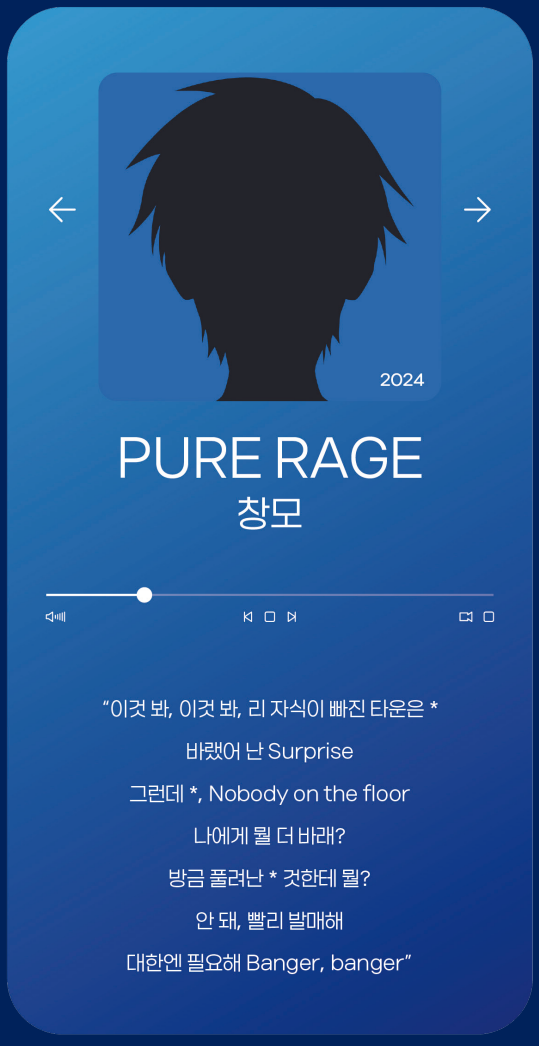
나는 아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이들이 산업재해 사고로 죽어간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제페토의 시가 있다. 시는 '공감대'를 만들기 시작한다. 제페토의 시처럼 정말 그 쇳물은 쓰이지 않았다.[16] 기사에 따르면 해당 철강회사는 시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따라 쇳물 전부를 녹인 뒤 둥근 형태로 굳혀 상징물로 남겼다고 한다. 시의 내용처럼, 아들을 그리워하는 부모님은 가끔씩 그곳을 찾아간다.

16) "10년 전 20대 청년 추락한 용광로...'그 쇳물은 쓰이지 않았다.'", 『한겨레』, 2020년 10월 11일

창모-PURE RAGE: 반지하부터 평창동까지, 공백부터 복귀까지

노래 〈PURE RAGE〉 리뷰 / 창모 / 2024

권 현



창모의 신곡 는 그가 'PURE RAGE' 군 제대 후 복귀하며 선보인 첫 미니앨범 『Wonderful Days』의 타이틀곡이다. 신시사이저를 이용한 강렬한 기계음과 창모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토튠[17]이 결합한 전자음악 위에 창모 특유의 에너지가 담겨 있다. 이 곡에서 창모는 힙합 씬에 대한 자신의 불만과 자신감을 드러내며, 자신이 이끌어주고자 하는 후배 래퍼들을 피처링으로 참여시켰다. 마치 2016년, 힙합 선배였던 The Quiett이 창모의 스타성을 보고 그를 AMBITION MUSIK에 스카웃 했을 때처럼.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
난 한강에 가서 술을 마셨네
되뇌이면서, '세상은 날 싫어해'
그렇지, 그렇지, 그럴만 했어
그때는 몰라, 그리고 애써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
눈물을 흘렸지 내 방 속에서
눈물 흘려 여의도에서
두 눈물 맛이 달라, ah"

– 창모, 「빌었어」, 2019.

창모의 과거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키워드는 '피아노'와 'SNS'이다. 창모의 음악 경력은 「마에스트로」의 가사처럼, 다섯 살 때부터 시작한 피아노 연주부터이다. 그는 20살과 21살, 피아노 실력으로 미국의 버클리 음악대학교에 두 번 합격했지만, 학비 문제로 진학하지 못했다. 결국 피아니스트의 꿈을 접고, 래퍼의 길로 들어선 창모는 언더그라운드부터 래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2013년 말에 낸 EP 『돈 벌 시간』은 나름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인지도를 얻게 되지만, 2014년에 낸 싱글 「Gangster」는 전혀 흥행하지 못했다. 《쇼미더머니 3》에서 심사위원 SanE에게 탈락한 후, 그를 SNS를 통해 비난해 대중의 뭇매를 맞고, 그는 아마추어들이 자작곡을 올리는 SoundCloud에 곡을 발표하기만 하는, 일명 '사클래퍼'로 살게 된다. 유명해지고자 하는 꿈을 꾸지만, 2014년부터 1년 단위로 발매한 믹스테입 『별 될 준비』, 『Incomplete』, 『MOTOWN』이 연속해서 실패했다.

그는 동년배 래퍼보다 뒤처진다는 불안함과, 대학을 가지 못했다는 열등감을 가진 채 2016년 『돈 벌 시간 2』를 발매했다. 그는 알코올 의존증처럼 술을 마셨지만, 언제나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포부를 SNS에 매일 같이 올렸다. 창모를 언더그라운드에 갇히게 한 것도 SNS였지만, 그를 다시 주목받게 한 것도 SNS였다. 대선배 The Quiett이 창모의 자신감을 보고 그를 1LLIONAIRE RECORDS 산하, AMBITION MUSIK의 창설 멤버로 스카우트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것이 『돈 벌 시간 2』 발매 3일 전의 일이다. 상술한 「마에스트로」와 창모의 대표곡 중 하나 「아름다워」는 이 앨범에 수록된 곡이다.

"표현 안 돼요 제 기분이
엄마 보내줄게 저 먼 italy
유유 걱정하지마
이제 너는 공부만 하면은 돼
Yo, 형이 계약금도 준대, uh
이건 줄래 엄마께, uh
일단 비밀 아빠껜, yeah
아빠가 시장 사람들에게 말씀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비밀로 햇 (쉿)
밥은 잘 챙기니 걱정 마
조만간 덕소 갈게, (bye mom)"

– 창모, 「빌었어」, 2019.

17) 보컬 교정용 프로그램. 조작에 따라 목소리에 기계음을 추가할 수 있다.

래퍼로서의 삶에 우여곡절을 겪던 창모였지만, AMBITION MUSIK에 입단한 이후로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었다. 창모는 그 후로 『돈 벌 시간 3』의 「아이야」, 『돈 번 순간』의 「One More Rollie」, 그리고 『닿는 순간』의 「Selfmade Orange」를 발매하며, 본격적으로 힙합 씬에 중심축을 이루는 래퍼 중 하나가 되어갔다. 2019년의 『Boyhood』 앨범은 그를 힙합을 넘어, 가장 성공한 래퍼 중 하나로 만들어주었다. 소년의 일생을 그린 영화 〈Boyhood〉에서 따와 지은 앨범의 제목처럼, 그의 삶을 담은 노래로 멜론 차트 1위를 차지했다. 음원 사재기 논란이 있었을 정도로, 전국에 그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전국 사람들이 외치네
저 괴물체는 뭘까
Meteor, 거대 Meteor
난 네게 처박힐 Meteor야"

– 창모, 「Meteor」, 2019.

창모의 노래는, '창모 노래'라고 불릴 법한 몇 가지 특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창모 노래를 몇 번 듣다 보면, 누구나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한 그의 스타일을 알 수 있다. 강렬한 오토튠과, 칸예 웨스트를 비롯한 외국 래퍼들과 비슷한 멜로디, 그리고 몇 안되는 주제의 가사이다. 창모의 가사는 사랑, 돈 자랑, 거리, 그리고 고향인 덕소에서의 생활과 자신의 실력자랑 정도이다. 창모 역시 자신의 음악 스타일을 다양화하고자 여러 시도를 하였다. 『UGRS』 앨범에서 강렬한 신시사이저를 내세운 전자음악 비트가 메인인 「태지」나, 「Hyper star」가 그러한 시도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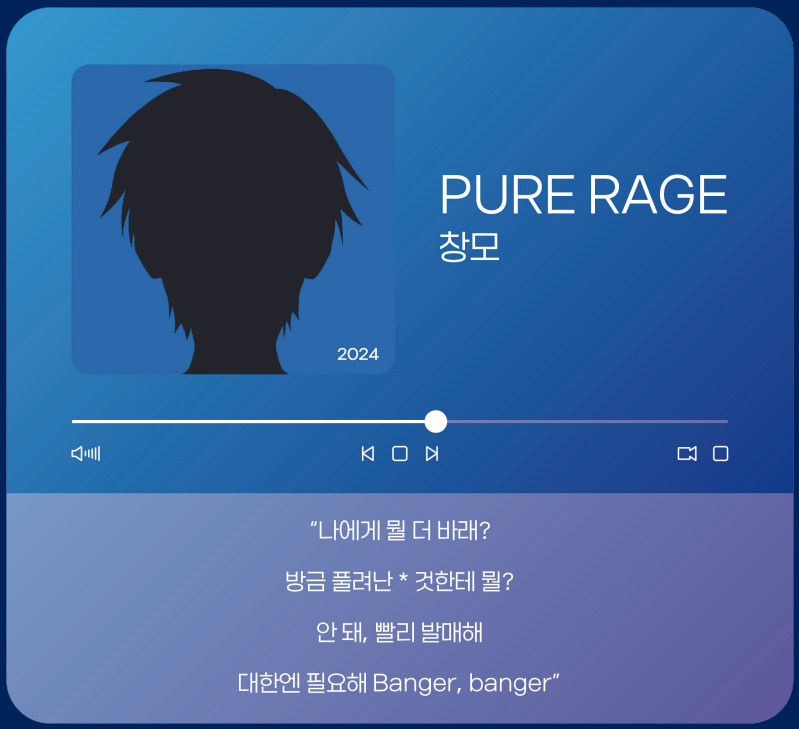
그러나 음악의 스펙트럼은 넓혔지만, 결국 돈과 자기 자랑으로 귀결되는 가사가 좁다는 청취자들과 평론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창모는 『UGRS』앨범을 발매한 지 4개월 후, 현역으로 입대하였다. 창모가 자리를 비운 동안 국내 힙합 씬은 빠르게 그 인기를 잃었다. Mnet의 인기 힙합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리즈는 시즌 11을 마지막으로 종영하였고, 힙합 장르의 히트곡의 수도 빠르게 줄었다. 창모의 전역 이후 처음으로 출시한 미니앨범, 『Wonderful Days』에 수록된 「PURE RAGE」는 군전역과 자신의 공백기로부터의 복귀를 가사로 쓴 곡이다. 래퍼들의 군복무 문제, 그리고 창모의 공백기와 맞아떨어진 힙합의 침체기를 가사로 사용한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나, 2016년 쯤에 자주 사용하던 플로우[18]를 다시 채용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창모가 이 곡을 발매하며 복귀의 신호탄을 던졌지만, 동시에 창모가 밀어주는 신인인 Street Baby와 KOR KASH도 이 곡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Wonderful Days』에 수록된 다섯 곡 중 유일하게 피처링을 사용한 곡이지만, 그들이 창모만큼 자신을 증명하였는지는 미지수다. 둘은 모두 뉴웨이브 트랩 장르의 플로우를 들고 와, 엇박 없이 랩을 했다. 이러한 구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으로 나뉜다. 그 둘의 구성을 정말 좋아하는 청취자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청취자도 많다. 창모 노래를 많이 듣는 한 명의 청취자로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구성에 회의적이다. 그들의 단순한 플로우는 복잡하고 강렬한 이 곡과는 오히려 대조된다. 같은 플로우는 4마디 이상을 넘어가면 쉽게 질리기 마련이다. BLASE의 「Chosen 1」이 빠른 비트에도 불구하고 쉽게 질린다는 평을 받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말인 즉슨, Street Baby와 KOR KASH가 맡은 파트는 '쉽게 질린다'.

힙합은 원래 다양한 스타일을 포용하고, 시도하는 장르지만, 자신의 원하는 스타일은 자신 스타일이 어울리는 곡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창모는 한 벌스 안에서도 수많은 엇박과, 플로우를 바꿔가며 청취

18) 비트 위에 시간에 따른 랩의 가사와 강약, 빠르기 등을 나타낸 개념.

자가 질리지 않게 곡을 구성했지만, 질리기 쉬운 정통 트랩 플로우는 창모의 스타일과는 이질적이다. 특히나, 신시사이저의 빠른 전자 비트가 깔리는 음악에서 목소리에 힘을 뺀 Street Baby는 다른 곡을 듣는 듯하게 분위기를 너무 바꿔버린다.

종합적으로, Street Baby와 KOR KASH 모두 자신 스타일대로 랩을 했지만, 그것이 이 곡과 어울리는지, 결과적으로 자신을 증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그려진다. 오히려, 「PURE RAGE(Remix)」에 참여한 Tray B는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 또한 창모가 힙합엘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창모가 밀어주는 신인 중 하나였으며, 그의 스타일은 창모와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스타일의 랩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Street Baby와 KOR KASH의 엇갈리는 평가는 이 곡의 가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 곡은 곡의 음악적 성향보다, 창모의 복귀작으로서의 의미가 더 크며, 힙합 비트는 아니지만, 다양한 스타일을 모두 포용하는 힙합 장르의 일부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모든 청취자의 취향을 만족시키지는 못할 수 있지만, 오히려 창모가 힙합 씬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의 격통이라 해석할 수 도 있다.